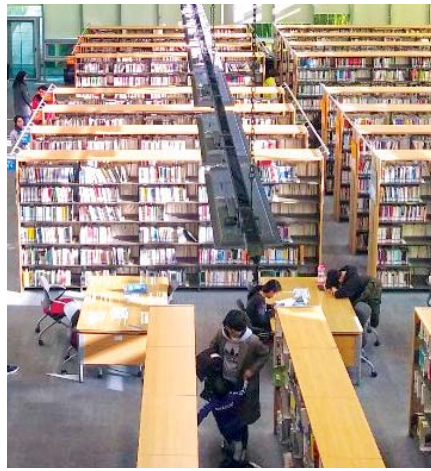


'선진지' 였던 제주도 대표도서관 시설 제자리

2008년 전국에서 앞서 설립 장서 31만권 보존서고 부족 프로그램 운영실 확충 필요 제주문헌실은 공간독립 안돼 도서관 평가는 실효성 약해



한라도서관 자료실. 개관 10여 년동안 시설 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표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한라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에 맞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도서관법에 근거해 설립·지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제주 한라도서관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가동되고 있다. 세종시는 2021년 개관 예정이다. 이들 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과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등 업무를 맡는다. 한라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 사업 초기인 2008년 11월 설립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하는 '선진지'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장서가 크게 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권한

은 제자리 걸음인 탓이다.

2020년 1월 31일 기준 한라도서관 장서는 31만2334권에 달한다. 2019년 말 이용자 수는 전년보다 15% 가량 늘어난 3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장서에 비해 보존서고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지난해 도서관 2층에 231㎡(70평) 규모 문서고를 새로 조성했지만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하려면 공간이 확충돼야 한다. 제주문헌자료실도 3만2000권이 넘는 도서를 보유했지만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 반자료실을 나눠 쓰고 있다. 도서관이 문화공간 기능을 확대하기는 추세에 맞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도서관 활동의 평가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그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예산은 물

론 배분 권한도 없다. 제주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도 그동안 손을 못댔다.

이 때문에 문화계 일각에서는 한라도서관이 '무늬만 대표도서관'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 도서관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주고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라도서관 관계자는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SOC 사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변 녹지공간을 갖춘 도서관의 이점을 살려 예술가 초청 강연, 여름밤 영화 상영, 어린이 강연 등 도심 문화공간으로 꾸꾸기 위한 야외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공공도서관 발전 연구는 지난 연말 제주도 운영심의를 통과한 만큼 추경을 확보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신종 코로나 확산에 애타는 기획공연

단순 연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재조정 변수 많아 항공·숙박까지 고려해야

이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됐다. 대극장의 경우 이달 7일 저녁 잡혔던 제주교향악단 윈드오케스트라 '다혼다' 창단연주회 일정이 미뤄졌다. 8일 오후고등학교 음악부 동문연주회도 연기를 결정했다. 정기적으로 소극장을 빌려 허튼곳을 열은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은 이달 5일 개최하기로 했던 '2020 허튼곳-나눔이야기' 2월 무대를 취소했다.

앞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0년 첫 기획공연으로 준비했던 '베토벤 X 클림트-운명의 키스' 일정을 연기

했다. 제주시는 이달 7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울리기로 했던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50회 정기연주회를 취소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탐라극인춘극(2월 1~4일 제주목 관아 일대)도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올해 기획 초청 공연을 준비해온 공공 공연장에선 사태가 장기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제주는 지역의 특성 상 국내외 출연진이 참여하는 공연 날짜를 재조정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 활동 시간표, 공연장 대관 가능 여부에 더해 항공과 숙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행사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난제가 따른다. 도

내 한 공연장 관계자는 "만일 상반기 내내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하반기로 미뤄 모두 소화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그에 따른 변수가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시장은 대부분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한 시간에 대중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공연과 달리 전시는 그 성격상 분산 관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인다. 지난해부터 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프렌치 모던'전을 이어온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 1일부터 폐막일인 7일까지 무료 관람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전시는 청소년·어린이 등을 제외하면 유료로 진행해왔다. 전선희기자

올해 4·3미술제 4·3평화기념관 간다

27회 4월 1일부터 한달간 예술공간 이아 동시 진행 주제 '경야' 연속 '레일'로

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주제는 지난해 '경야(經夜)'의 바통을 잇는 연속 전시의 성격을 띤다. 밤을 새워 지킨 결과 이번엔 여명을 보며 새 시대의 도래를 담고자 했다. 그와 유사한 음을 내는 영문 'RAIL'은 '철제의 궤도'로 끊어진 다리를 이어 다시 연결하고 전혀 마주해본 적 없는 것을 정면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시는 4월 1

일부터 한달 동안 4·3을 기리는 공간인 제주4·3평화기념관과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한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제에 앞서 2일에는 1차 워크숍이 마련됐다. 이날 3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성산일출봉, 우뚝개해안, 광치기해변, 터진목, 서북청년단 주둔지,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등에서 4·3 기행을 실시했고 제23회 4·3미술제 예술감독을 지낸 김유정 평론가의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다. 전선희기자

해비치페스티벌 공청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이승정)가 이달 4일 오후 2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회 행사 성과 공유, 제주도내 예술단체 대상 13회 행사 참가 안내와 참여 요청, 지역 우수 공연프로그램의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제13회 행사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주(2월 3~9일) 무대 & 미술



미국 LA 아트쇼로 향하는 양상철 작가의 '폭포와 게'.

바람 탄 붓질에 자구리해안 추억

글·그림 등 경계 허문 작업 양상철 작가 LA 아트쇼에

<전시> ▶ '꼬마여우' 원화전=2월 3-28일 한라도서관. 710-8666.

▶ 양상철 작가 미국 LA 아트쇼 전시=2월 5-9일 LA 컨벤션센터. 010-3099-2282.

▶ 2019 보도사진전=제주사진기자협회 주최 2월 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윤슬 사진전=2월 6일까지 이중섭미술관창작스튜디오 전시실. 760-3573.

▶ 푸르메 회원전=2월 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연갤러리 이민 초대전=2월 7-25일. 개막 행사는 2월 7일 오후 5시. 010-8954-3435.

▶ 프렌치 모던=개관 10주년 기념전으로 2월 7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710-4300.

▶ 강태환 개인전=2월 7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710-4300.

▶ 포토1004 회원전=2월 8-13일 문예회관. 710-7633.

▶ 장우호 산수화 작품전=2월 8-13일 문예회관. 710-7633.

▶ 김방희 조각전=2월 9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710-7801.

▶ 강문석 개인전 '풍운마(風雲馬)'=2월 9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710-773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글과 그림의 경계를 허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의 '융합예술가' 양상철 작가가 미국 LA 아트쇼로 향한다.

양 작가는 이번에 제주의 바람을 창작 모티프로 삼았다. 서귀포 지방폭포 자구리해안에서 게를 잡으며 놀던 추억을 목판 위 석고를 바르고 단 한번의 붓질로 표현한 '폭포와 게' 등을 선보인다. 양 작가는 LA 아트쇼에 이어 '현대 한국서예 9인전' (2월 26일 한국미술관 개막)에도 초청됐다.

<공연>

▶ 칸타타 '민주의 희망, 대한민국' =코리아급 오케스트라 주최 2월 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6258-6973.

▶ 뮤즈 바이올린양상을 정기연주회=2월 9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171-2840.

▶ 낭만과 근·현대속으로=2월 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9350-0187.

▶ 연극 '스탠드 업 그리고 자의적 의자'=2월 8-9일, 15-16일 오후 3시와 7시 예술공간 오이. 010-9687-0919.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